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취업스트레스의 연관성

박복순¹, 조하나¹, 박병준^{2*}

¹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²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Bock Soon Park¹, Hana Cho¹, Byung-Jun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써, 강원도에 소재하는 3개 대학에서 편의 추출하여 332명의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89.57±9.77점, 자아 존중감은 25.11±2.58점, 취업 스트레스는 46.38±17.67이었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r=.294,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취업스트레스($r=-.240, p<.001$) 및 자아존중감($r=-.209,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35.2%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variabl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32 nursing students. The students got 89.57±9.77 in critical thinking; 25.11±2.58 in self-esteem; and 46.38±17.67 in job-seeking stres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self-esteem($r=.294, p<.001$), and critical thinking($r=-.240,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r=-.209,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to affect job-seeking stress, and the two variables had a 35.2% explainability.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Job-seeking Stress,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대학생의 취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이다[1]. 이는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되는 간호학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2].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

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4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58.6%에 불과하였으며[3],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7.9%로 전체 평균 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4]. 간호학과의 경우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2014년 기준 취업률 73.3%로 전문대학 전체 평균 61.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3], 여전히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대학생의 취업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Corresponding Author : Byung-Jun Park(Daegu Health College)

Tel: +82-53-320-4518 email: byungjun00@dhc.ac.kr

Received December 26, 2014 Revised (1st January 23, 2015, 2nd January 27, 2015, 3rd February 4, 2015) Accepted February 12, 2015

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이러한 이유로 대학 신입생부터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걱정은 대학생들의 주요 고민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는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 연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져야함과 동시에 취업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서의 간호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과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학생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을 길러주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의 필수 능력으로서 비판적 사고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6].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에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위해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이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평가와 판단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개인적인 성향 및 기질이라고 볼 수 있다[7].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개인의 내적인 감정상태와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진로 교육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된다[6].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을 소유하게 되며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8].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9], 간호학 전공자에게 자아존중감은 과제 수행 및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며, 이를 토대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세계에서의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Lee[1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면서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상현장에서 복

잡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12] 비판적 사고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위해 학업 성취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때로, 이시기에 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한다[8]. 지속적인 비판적 사고 과정으로 인해 학업에 성공하는 경험을 가진 학생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반면에 학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비하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은 낮아져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는 본인 스스로의 자아존중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3].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으며[15],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에 따른 위모[16],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13],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17], 자아존중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조사한 연구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11], 초등학생대상의 자아존중감과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8].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자아존중감과 함께 학생이 지니고 있는 비판적 사고 성향은 현장 수행 단계에서 대상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간호수행을 제공할 수 한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의 해결방안을 토대로 자아존중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간호대학생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교육 개발 과정 및 진로설정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 간호(학)과의 취업준비 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33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KWNUIRB-2014-06-002)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선정된 대학의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었으며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린 후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수행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13문항, 비판적 사고 성향 27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취업스트레스 22문항으로 총 72문항이다. 특히,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의 규모를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중소병원까지 분류를 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설문지에 병원 이름의 예를 기술해 두어 이해를 돕게 하였다.

2.3.1 비판적 사고 성향

본 연구에서는 Yoon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도구[19]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정한 회의성, 객관성의 7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이었고[19],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20]를 Jeon이 번안한 척도[21]를 사용하였다.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인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척도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법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전체 점수는 최저 10점부터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2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된 Whang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22]를 참고하여 Kang이 수정·보완한 도구[23]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성격, 가족환경, 학교환경, 학업, 취업불안 스트레스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전체 점수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 척도 영역별로 Cronbach's alpha=.78~.88이었고[23],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96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32명으로 남자가 49명(14.8%), 여자가 283명(85.2%)이고 간호(학)과 3학년 졸업 예정 학생은 235명(70.8%), 4학년은 97명(29.2%)이었다. 연령대는 24세 미만이 270명(81.3%), 25~29세가 53명(16.0%)이었고 30세 이상도 9명(2.7%)이 있었다. 대학에 입학당시 학력은 고졸이 250명(75.3%)이었고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는 82명(24.7%)이었다. 대 학생화에 만족도는 87명(26.2%)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190명(57.2%)은 보통, 55명(16.6%)은 불만족이라고 표현하였다. 반면에 간호학과 만족도는 145명(43.7%)이 만족

한다고 하였고 158명(47.6%)이 보통이라고 하였고 29명(8.7%)만이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현재까지 성적으로는 평균평점 4.5점 만점에 4.0 이상이 62명(18.7%), 3.5~4.0이 129명(38.9%), 3.0~3.5는 111명(33.4%), 3.0미만은 30명(9.0%)이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내 상위 5개 병원을 표기한 대상자가 67명(20.2%), 3차 대학병원이 97명(29.2%), 2차 대학병원 148명(44.6%), 2차 종합병원 15명(4.5%)이었고, 기타 의견으로 개인의원도 5명(1.5%)이 있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2에 설명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89.57±9.77점으로 최소 59점에서 최대 118점까지 분포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25.11±2.58점으로 최소 17점에서 최대 31점까지 나타났다. 취업 스트레스는 총점 46.38±17.67이었고 최소 22점에서 최대 99점까지 나타났다.

[Table 1]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Job Seeking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32)

Variables	Category	n(%)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Job Seeking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49(14.8)	92.98±9.67	2.675	.008*	24.27±2.91	-2.502	.013*	42.39±14.14	-2.046	.044*
	Female	283(85.2)	88.98±9.68			25.26±2.50			47.07±18.14		
Grade	Grade 3	235(70.8)	90.36±9.68	2.326	.021*	24.87±2.52	-2.648	.008*	43.55±17.35	-4.678	<.001*
	Grade 4	97(29.2)	87.64±9.75			25.69±2.66			53.23±16.59		
Age (Years)	Under 24	270(81.3)	89.13±9.73	1.720	.086	25.18±2.55	.976	.313	46.54±18.05	.373	.071
	Above 25	62(18.7)	91.48±9.76			24.82±2.75			45.68±16.02		
Education at the time of admission	High school	250(75.3)	89.06±9.42	-1.541	.126	25.06±2.65	-.682	.496	46.81±17.95	.771	.441
	Over the college	82(24.7)	91.10±10.65			25.28±2.38			45.07±16.81		
College Satisfaction	Satisfaction (a)	87(26.2)	92.51±9.96	5.498	.004*	24.22±2.17	7.520	.001*	38.99±15.89	10.966	<.00*
	Common (b)	190(57.2)	88.47±9.48	(a>b)**		25.48±2.66	(a<b)**		49.15±18.08	(a<b)**	
	Dissatisfaction (c)	55(16.6)	88.69±9.67			25.24±2.62			48.51±15.72	(a<c)**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a)	145(43.7)	92.48±10.05	12.394	<.00*	24.61±2.32	5.232	.006*	43.52±16.85	3.704	.026*
	Common (b)	158(47.6)	87.49±8.82	(a>b)**		25.56±2.68	(a<b)**		48.18±18.16	(a<b)**	
	Dissatisfaction (c)	29(8.7)	86.34±9.63	(a>c)**		25.14±2.92			50.86±17.36		
Grade Point Average (perfect score 4.5)	Above 4.0 (a)	62(18.7)	93.40±8.43	6.295	<.00*	24.97±2.33	.498	.684	42.00±15.89	3.517	.015*
	3.5~4.0 (b)	129(38.9)	89.08±9.49	(a>b)**		25.26±2.53			45.30±17.49	(a<d)**	
	3.0~3.5 (c)	111(33.4)	89.36±10.23	(a>d)**		25.14±2.38			48.14±18.27		
	Under 3.0 (d)	30(9.0)	84.50±9.22			24.67±3.84			53.53±17.46		
Hospital type for students want to work	Advanced General Hospital	67(20.2)	93.58±9.43	4.506	.001*	24.72±2.33	.861	.488	42.07±16.96	2.168	.072
	Grade 3 University Hospital	97(29.2)	89.43±9.73	(a>c)**		25.18±2.61			46.99±16.49		
	Grade 2 University Hospital	148(44.6)	88.09±9.40			25.18±2.64			47.95±18.43		
	General Hospital	15(4.5)	86.00±11.47			25.93±2.92			50.33±19.32		
	And so on	5(1.5)	92.80±5.81			24.60±2.40			33.80±10.35		

*p<.05 **Scheffe's test

[Table 2]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Job Seeking Stress (N=332)

Variables	M±SD	Min~Max
Critical Thinking	89.57±9.77	59~118
Self-esteem	25.11±2.58	17~31
Job Seeking Stress	46.38±17.67	22~9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1에 함께 정리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성별($t=2.675, p=.008$), 학년($t=2.326, p=.021$), 대학 만족도($F=5.498, p=.004$), 학과 만족도($F=12.394, p<.001$), 성적($F=6.295, p<.001$), 취업 희망병원의 규모($F=4.506,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t=-2.502, p=.013$), 학년($t=-2.648, p=.008$), 대학만족도와($F=7.520, p=.001$) 학과 만족도($F=5.232, p=.006$)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t=-2.046, p=.044$), 학년($t=-4.678, p<.001$), 대학 만족도($F=10.966, p<.001$), 학과 만족도($F=3.704, p=.026$), 학점($F=3.517, p=.015$)에 따라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그에 따른 각각의 Scheffe's 사후검증결과는 표 Table 1에 함께 기술하였다.

3.4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자아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와 각각의 하부영역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r=.29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취업 스트레스($r=-.240, p<.001$), 자아존중감에서($r=-.20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 만족도, 학과 만족도 및 성적을 회

귀분석식에 투입한 후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단[Table 4].

회귀분석의 검정 결과, 모형이 유의하고 Durbin-Waston test도 1.911로 2근처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9이고 분산확대지수(VIF)도 1.1로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판적 사고 성향($\beta=-.148, p=.009$), 자아존중감($\beta=-.146, p=.008$)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요인은 비슷한 예측인자이며, 총 설명력은 35.2%였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Job Seeking Stress (N=332)

	Critical Thinking (p)	Self-esteem (p)	Job Seeking Stress (p)
Critical Thinking	1	.294 <.001*	-.240 <.001*
Self-esteem		1	-.209 <.001*
Job Seeking Stress			1

*p<.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Job Seeking Stress (N=332)

Variables	β	t	p	R ²	F(p)
Constant		2.793	.006		
Critical Thinking	-.148	-2.636	.009	.352	9.233 (<.001)
Self-esteem	-.146	-2.675	.008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의 취업 준비 중인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간의 서술적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89.58±9.77점으로 나타나 Choi[24]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활동 중인 간호사와 비교하기 어렵기는 하겠으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간호사로 성장함으로써 인해 더욱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전공 심화 학위과정일수록 높다고 설명한 Lee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수도 있겠으며[11], 본 연구에서 연령대와 입학당시 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결과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영역에는 건전한 회의성, 지적 공정성, 객관성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 능력을 길러 나아갈 수 있고[25],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도덕성과 성숙함이 발달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도 견주어 볼 수 있겠다[17].

성별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과 Kim의 연구[26]와 Lee의 연구결과[11]와 동일한 결과이기는 하나, Lee 등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27]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르며, 제시된 대상자 표본수에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4.8%로 충분하지 않아 남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학교와 학과의 만족도에 따라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와 Lee 등의 연구결과[27]와 일치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간호학에 대한 지적 열정이나 호기심,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태도로 인해 비판적 사고 성향이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간호학은 하나의 특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다루기도 하므로 부족한 자료와 지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제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25].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간호업무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간호해야 하므로 창의적이고 상황대처에 빠르게 적응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고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도 지속적인 노력 및 개선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6.11±2.58점으로 측정되어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Song[28]의 연구와 Jung과

Kwon[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Jung과 Kwon[29], Kang과 Whang[30]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학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화 하기는 어렵겠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내리는 자기평가로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기행동양식을 결정하게 하며, 개인의 총체적인 행복감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에 있어 사회 적응에 필수적이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및 추후 임상현장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평소 자신의 소진뿐만 아니라 임상현장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29].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30]. 이렇게 충족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직업을 통한 성취감 향상과 직업적 확신 및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31], 계속적으로 학업에 성공하는 경험을 가진 학생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생은 노력해야한다. 반면 지속적인 학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게 되므로 긍정적인 개념과 시각을 통해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46.38±17.67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조사한 Han[32]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졸업 학년에 따라서는 3년제와 4년제 졸업 예정에 따라서 취업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4년제 졸업 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전문대학 졸업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Byun과

Park[33]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간호학의 특성으로 3년제와 4년제에서 동일한 수업과정을 이루어 지고 있고 4년제로 일원화 되는 간호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학교와 학과의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모두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34]. 또한 학업성적에 따라 성적이 높은 그룹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Shin의 연구결과[34]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와 견주어 비교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인생목표를 설정하여 자기조절 학습 방법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학과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4].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며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에 교수자와 가족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학교차원의 정보적 지지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27]의 연구결과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한 Shin의 연구결과[34]와 동일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신·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비판적 사고 성향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고하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이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토대가 된다면 취업스트레스의 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자아존중감 또한 정신 심리적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1] 다양한 사회적지지와 학과의 교육에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비판적 사고 성향은 현

사회의 대학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에게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으로 이들은 미래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생활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원인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과 함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의 3개 대학교 간호과와 간호학과의 취업 준비학년인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수행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교육 개발 과정 및 진로설정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 증진에 중점을 둔 교육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스트레스의 감소를 확인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학과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

- [1] R. I. Whang,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6, No. 2, pp. 215-226.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15>
- [2] H. Y. Koo & H. S. Park,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2, pp. 373-385. 2005.
- [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Brief statistics on employment”,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 [4] Statistics, “Employment Trends”, 2014
- [5] D. S. Park,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2, pp. 728-73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2.728>
- [6] S. J. Yune, S. J. Shin & E. Y. Lee, “A Study on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Vocational Personali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 Fish. Mar. Sci. Edu*, Vol. 19, No. 2, pp. 206-218, 2007.
- [7] P. A. Facione, & N. C. Facione,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 test manual (3rd ed)”, California: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4.
- [8] S. J. Lee & J. H. Yo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3, pp. 607-689. 2008.
- [9]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1979.
- [10] E. C. Kelly, “Theory and the flow of thought”. New York : Plenum press, 1962.
- [11] J. I. Lee,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5, No. 2, pp. 166-174.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2.166>
- [12] G. S. Jeong, K. A. Kim & J. A. Seong,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9, No. 3, pp. 413-42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13>
- [13] H. S. Park, Y. J. Bae & S. Y. Jeo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11, No. 4, pp. 621-631, 2002.
- [14] H. S. Lin, J. C. Probst & Y. C. Hsu, “Depression among female psychiatric nurses in southern Taiwan: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f job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9, No. 15, pp. 2342-2354. 2010.
- [15] S. H. Choi & H. Y. Lee, “e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2, pp. 808-816,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08>
- [16] M. K. Cho, E. J. Choi, J. W. Lee &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0, No. 2, pp. 141-150, 2013.
- [17] Y. H. Kim,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12, pp. 817-828.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17>
- [18] J. S. Hong & C. H. Lee, “The Effects of LTPIE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 Esteem and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5, No. 4, pp. 307-329, 2012.
- [19]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20] M. Rog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1]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Vol. 11, pp. 107-124, 1974.
- [22] S. W. Wh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1998.
- [23]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6.
- [24] H. R. Choi, “The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2011.
- [25] J. J. Kim, Y. S. Park, J. W. Park, J. H. Park & S. H. Yang, *Nursinf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Hyunmoonsa: Seoul, 2012.
- [26] K. H. Kim & G. D.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3, No. 2, pp. 229-236, 2007.
- [27] J. Y. Lee, Y. M. Lee, S. Y. Park, M. J. Lee & Y. H. Jung,

“Original Articles :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9, No. 4, pp. 606-616,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06>

- [28] N. O. Song, “University student’s stress, self-control, self-esteem and internet us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29] H. Y. Jung & J. O. Kwon,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91-204, 2013.
DOI :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4.191>
- [30] Y. S. Kang & S. K. Wh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3301-330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 [31] H. Cho &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63-173. 2006.
- [32] K. S. Han, “Relationship between Job Preparation Stress, Ego Resili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myook, Seoul, 2014.
- [33] E. K. Byun & S. H. Park “Effects of Majors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323-33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23>
- [34]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 Science, Vol. 12, No. 3, pp. 217-225. 2012.

박 복 순(Bock Soon,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박 병 준(Byung-Jun, Park)

[정회원]



- 2012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수료)
- 2013년 3월 ~ 2014년 8월 :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순환기계 중환자 간호

조 하 나(Hana, Cho)

[정회원]



- 2012년 2월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과정)
- 2014년 4월 ~ 현재 :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조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자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